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

이 은 숙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Orientalism in the Modern Fashion

Eun-Sook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Ulsan

(2004. 2. 28.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how the Orientalism trend is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in terms of silhouette, color, materials, and detail. To this end, the geographic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China, Japan, Korea, while data are collected from fashion collections, domestic and foreign magazines since 2000's, literature, and internet si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ilhouette: the basic square silhouette of the Oriental traditional costume do not disturb the body movement and have an effected on design to smoothly follow the body line rather than cutting out materials into several parts or emphasize the curved body. 2. Colo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Oriental Zen thought, color trend seems to pursue simplicity rather than complexity, and natural aesthetics. In addition, the Oriental colorfulness shall not be ignored. 3. Materials: golden embroidered material, polished satin, jersey, tough or rough materials, etc. have used with materials of the Oriental traditional costume came into fashion. In pattern, the Orientalism trend is expressive of pattern by Chinese ink-spread technique, simple brush touch technique, cloud pattern, lotus flower pattern or dragon pattern, all of which feature the Oriental calm aesthetics or those motivated by the Oriental traditional patterns. 4. Detail: the techniques of handicrafts and manual arts such as meticulous embroidery, tassel or patchwork reflect well the Orientalism trend in the modern fashion.

Key Words: orientalism(오리엔탈리즘), silhouette(실루엣), color(색채), materials(소재), detail(디테일)

I. 서론

1980년대 이후의 패션은 서양문화의 모티브로 전개되던 패션테마의 흐름에서 비서양 지역, 특히

오리엔탈 문화를 패션디자인의 모티브 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어패럴 시장의 글로벌 현상과 공동체 의식, 서양문화와 비서양문화간의 절충주의와 다원화 추구, retro-fashion 경향 등에 의한 것으로 현대패션의 한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retro-fashion의 등장은 민속복식을 세계패션의 주제로 부각시켰고 민속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서양에서 볼 때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 eunsook@mail.ulsan.ac.kr

※ 이 논문은 2003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국적인 느낌이 가장 강렬한 동양복식이며, 이는 오리엔탈리즘으로 확립되었다¹⁾. 현대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오리엔탈 문화양식이나 오리엔탈 전통의상의 실루엣,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 등이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서양패션과 부분적으로 절충, 혼합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오리엔트의 신비주의적 사상인 선(禪)은 절제된 미니멀리즘 패션경향을 유도하였고 오리엔탈 문화의 특징인 고요함, 신비함, 화려함 등은 실루엣, 색채, 소재, 먹물을 이용한 패턴표현법, 디테일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모노의 사각형 실루엣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느슨한 실루엣이나 비대칭적인 구조적 형태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현대패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비서양문화권의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과 함께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공통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이미 1910년대 폴 포아레(Paul Poiret)에 의해 장식적이며 화려한 색채의 동양적 취미가 패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²⁾ 러시아 발레를 통해 페르시아, 일본, 중국 등의 오리엔탈 의상 분위기가 전해졌으며, 1984년경에는 인도풍으로, 1988년경에는 몽골풍으로, 1990년경에는 「인도차이나」와 「마지막 황제」 등의 영화의 영향으로 중국풍으로 전개되어졌다³⁾. 또한 1980년대의 일본풍의 등장은 소재나 색채뿐 아니라 근본적인 형태에 영향을 주어 패션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였고⁴⁾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게와 다카다 겐조에 의한 일본 기모노 의상과 현대패션과의 접목은 역시 오리엔탈 모드로서 전 세계의 패션 트렌드로 제시되어졌을 뿐 아니라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있어 일본풍이 부각되었다⁵⁾.

이처럼 현대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패션테마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졌다. 윤명자⁶⁾(1992)의 '현대패션의 ORIENTALISM'에서는 '80년대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여성복에 나타난 일본풍, 러시아풍, 중국풍, 인도풍, 중동풍을 고찰하였으며, 이정아⁷⁾의 '현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에스닉(Ethnic)풍에 관한 연구'에서는 1980년대-1990년대 잡지를 중심

으로 현대복식에서 에스닉풍을 형성하는 유행경향 중의 하나인 오리엔탈적 경향을 소개하였으며, 송명진⁸⁾의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에서 이국취향의 표현 중의 한 요소로서 1980년대 서구복식에서의 동양적 요소가 문화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등을 살펴보고 최해주, 안은경⁹⁾의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서 표현된 복고주의 유형별 디자인과 조형성을 분석하고 국내, 외의 복고주의 패션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고찰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서양패션의 관점에서 본 이국풍의 오리엔탈리즘으로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 전통의상의 특징이나 민족적 취향이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이 2000년 이후의 현대패션을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실루엣,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 등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은 국내 선행연구, 관련 전문서적,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였고 실증적 내용분석은 2000년 이후 출판된 *vogue* 패션잡지를 비롯한 국내의 패션잡지에 게재된 디자이너의 작품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II-1.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근세 유럽에 있어서의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서 동방취미¹⁰⁾,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¹¹⁾를 지칭하며,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오리엔탈리즘은 18세기경부터 유럽각지의 상류계급사이에서 유행하여 *chinoiserie*, *turquerie* 등이라고 하여 미술이나 음악의 주제,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게 되었다¹²⁾. 현대에서의 오리엔탈리즘 경향의 재출현은 고도의 산업사회가 주는 스트레스와 복잡하고 시끄러

은 일상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오리엔트의 정적인 문화, 차분하고 순수한 정신으로의 회귀와 잘 어울려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패션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1970년경 다카다 겐죠, 이브 생 로랑 등은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 복식을 낭만적인 정취로 표현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리엔트 복식과 서양복식의 융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단순히 낭만적 요소의 표현이 아닌 오리엔트의 독자적인 민족적, 문화적, 인식론적 특성 속에 내재된 합리적인 원리까지도 표현되었다¹³⁾. 이를 통해 현대패션을 주도해왔던 서양 디자이너들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졌고 오리엔탈리즘 경향을 서양패션에 융합함으로써 디자인발상 전환과 더불어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반향이 제시되었다. 오리엔트의 명칭은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에서 유래되어 해 뜨는 곳, 동방이라는 방위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¹⁴⁾, 오늘날 오리엔트의 지역적 범위는 극동지방이나 아프리카 북부까지도 포함한 동방 세계 전체 혹은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하는 극동, 근동, 중동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오리엔탈리즘 표현 경향의 지리적 범위는 앞서 제시된 것처럼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Ⅲ. 현대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

현대패션의 테마 중의 하나인 오리엔탈리즘 경향은 인체의 율동을 방해하지 않는 느슨한 실루엣, 동양적인 화려한 색상, 간결함과 여백미를 느끼게 하는 문양, 섬세한 자수, 민족고유의상의 부분적인 디테일과의 혼합 등을 특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특징이나 민족의상의 특징이 2000년 이후의 현대패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실루엣,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루엣

오리엔트 문화의 특징인 정결함, 고요함, 간결함, 그리고 절제 혹은 민족의상 그 자체의 실루엣이나 겹겹이 입는 성장(盛裝) 차림새에 의해 연출되는 사각형 실루엣은 현대패션의 실루엣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현대패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인체를 조이면서 나타나는 인체 곡선미의 표현보다는 의상의 느슨함 속에서 인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인체 곡선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여 드러나게 하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나 S자형 실루엣의 디자인에 익숙한 서양 디자이너에게는 여성 인체미의 표현을 위한 실루엣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느슨한 straight 실루엣, drape 또는 layered 착장법에 의해 표현되는 실루엣, 의상 그 자체의 사각형 실루엣과 허리 벨트와의 매치를 통해 연출되는 H라인 등을 포함한 단순한 사각형 실루엣은 인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유행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림1>은 사각형 실루엣인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이 실루엣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선의 방향이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심플한 형태에서도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리듬을 느끼게 한다. <그림2>는 이영희(Young Hee Lee)의 작품으로 일본, 한국 등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상을 겹쳐 입는 성장(盛裝) 차림새에 의해 연출되는 사각형 실루엣의 한 형태이다. 여러 의상을 겹쳐 입는 착장법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각형 실루엣은 인위적으로 인체의 곡선



<그림1> L'OFFICIEL (2003. 3). p.141



<그림2> Lee Young-Hee BAZAAR KOREA (2001. 5). p.26

을 나타내기 보다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인체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착장법에 의해 표현되는 실루엣은 일본 디자이너에 의해 독창적인 조형감각으로 등장하였다¹⁵⁾. 서양의 기성복에 도전한 다카다 겐조와 이세이 미야게는 헐렁하고 비구축적인 의상으로 신체를 레이어링이나 랩핑 그리고 조각화시킴으로서 의상에 접근하였다¹⁶⁾. <그림3>은 안토니오 말라스(Antonio Marras)의 작품으로 비구조적 형태와 사각형 실루엣을 사용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4>는 임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의 작품으로 일본의 긴 기모노를 테마로 하여 발전시킨 사각형 실루엣의 기모노 자켓으로 재구성하였고 여밈은 일본의 오비를 접목시킨 사각형 실루엣의 한 형태인 H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패션에서 재현되는 기모노 스타일은 단순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여밈의 표현이 착용하기에 편리한 wrap형식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는 로즈마리 로드리게즈(Rosemari Rodriguez)의 작품으로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에 기모노 소매를 해체 재구성한 넓고 긴 소매와 오비지메를 연상케 하는 허리끈으로 여밈은 H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6>은 로랑 메르시에(Laurent Mercier)의 작품으로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우를 블라우스 형태로 디자인한 사각형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7>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중국의 치파우를 모티브로 하여



<그림5> 로즈마리 로드리게즈
VOGUE KOREA
(2002. 12). p.22



<그림6> 로랑 메르시에
VOGUE KOREA
(2002. 12). p.23



<그림7> Christian Dior
L'OFFICIEL KOREA
(2002. 4). p.262



<그림8> Lee Young-Hee
VOGUE KOREA
(2002. 12). p.26

소매산의 강조와 극대법을 통한 긴 소매를 특징으로 하는 사각형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은 이영희(Young Hee Lee)의 작품으로 한국의 전통복식인 치마를 해체 재구성하여 치맛자락을 여밈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드레이프에 의해 연출되는 사각형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전통의상이 현대패션의 디자인 테마로 부각되어졌으며, 이들 전통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각형 실루엣은 현대패션과 접목되었을 때 보다 단순하고 간결한 선의 사각형 실루엣으로 표현되었고 인위적인 인체선의 표현보다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자연스런 율동감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오리엔탈 의상은 서양의상과는 본질적으로 형태미에서 특성이 나타나는데, 서양의상은 신체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오리엔탈 의상은 복식을



<그림3> Antonio Marras
패션 디자인 발상. 교문사.
(2001). p.213



<그림4> Emanuel Ungaro
L'OFFICIEL KOREA
(2002. 4). p.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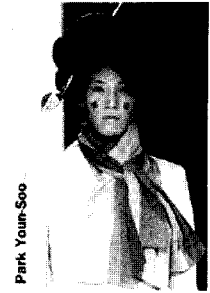
통해 인체의 윤곽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던 까닭¹⁷⁾으로 느슨한 형태미를 특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이 패션테마로 등장할 때마다 강력하게 등장하는 디자인 테마는 전형적인 사각형 실루엣을 연출하는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통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뿐 만 아니라 일본 디자이너들의 조형적인 감각, 즉 섬세한 주름, 드레이프(drape)와 레이어드(layered)를 현대식으로 변형한 일본풍의 아방가르드 표현은 서양 패션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색채

오리엔탈리즘의 문화를 색채로 표현한다면 극도로 절제된 무채색이나 강렬함과 화려함을 주는 유채색의 양면적인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종이와 먹물을 연상케 하는 무채색 대비를 통한 간결미와 여백미, 흑-백색 같은 무채색 외에 밤색, 카키색, 겨자색 같은 차분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색상들 간의 대비를 통한 순수미와 자연미, 오렌지색, 포도주색, 붉은 기운이 있는 보라색 등 화려한 색상들 간의 대비를 통한 화려미로 대별된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표현된 오리엔탈 색채 이미지는 정결하고 고요한 느낌을 특징으로 하는 '젠(zen) 스타일'의 영향으로 거추장스러움을 철저히 털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하면서 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느낌과 이에 비해 결감과 안감의 보색 사용, 한국의 색동에서 모티브를 얻은 오색 사용,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한 톤(tone) 차에 의한 보색배색을 통한 화려한 느낌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네 크라인 부분(깃부분), 소매단, 오비와 오비지메를 모티브로 한 허리벨트 등에 화려한 색상을 액센트로 사용함으로써 그 대비에 의해 양자가 지닌 색채미를 최대한 높여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였다¹⁸⁾. <그림9>는 도나 카란(Donna Karan)의 작품으로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에 오리엔탈리즘의 정적인 느낌을 주는 검정색과 흰색의 명도차에 의한 대비배색을 이용하여 절제미와 간결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10>은 박윤수(Youn Soo Park)의 작품으로 한국의 색동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이를 재현시킨 오색 스카프로



<그림9> Donna Karan
VOGUE KOREA
(2002. 12). p.50



<그림10> Park Youn-Soo
VOGUE KOREA
(2000. 1). p.102



<그림11> Andrew GN
VOGUE KOREA
(2002. 12). p.25



<그림12> Sul Yun Hyoung
VOGUE KOREA
(2001. 8). p.280

서 화려한 멋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은 앤드류 지엔(Andrew GN)의 작품으로 오리엔탈 패턴에 파란 색 계열, 붉은 색 계열, 녹색 계열, 노란 색 계열 등을 아름답게 매치시켜 현시성 효과와 함께 오리엔트적인 화려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12>는 설윤형(Yun Hyoung Sul)의 작품으로 한국적인 모티브를 모던하게 표현한 작품으로서, 검정과 빨강의 강렬한 대비를 통한 현시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던한 오리엔트적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이상과 같이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아 표현된 현대패션에서의 색채경향은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인 간결함과 여백의 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검정색과 흰색의 명도차에 의한 대비배색 방법,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번지기 기법의 효과를 살린 gradation 배색 방법, 오리엔트

의 화려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색배색이나 보색대비 혹은 현시성을 나타내주는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한 톤(tone) 차를 이용한 대비배색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소재 및 패턴

오리엔탈 의상에서 즐겨 다루어진 소재인 직금(織金), 사틴, 실크, 광택 소재 등이 오리엔탈리즘의 경향과 함께 현대패션의 소재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뽀뽀한 재질감을 가지고 있어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유행된 사각형 실루엣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었고 인체의 곡선을 과장되지 않게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오리엔탈 공예적 기법을 응용한 소재표면의 특성변화,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을 이용한 패턴 표현, 전통적인 오리엔탈 패턴표현 등이 오리엔탈리즘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림13>은 이정우(Jung Woo Lee)의 작품으로 초록색 실크 소재에 자개장룡을 만들 때 장식으로 널리 쓰이는 재료인 자개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4>는 앤드류 지엔(Andrew GN)의 작품으로 광택이 나는 사틴 소재에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회화의 소재로 다루어지는 매화문양이 프린팅되어 오리엔탈 정서를 느끼게 한다. <그림15>는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작품으로 광택이 있는 자카드 소재를 사용한 코트류로서, 뽀뽀한 자카드 소재는 사각형 실루엣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광택 소재와 자카드 소재는 오리엔탈 에스닉의 영향으로 2003년 S/S 시즌 소재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졌다. <그림16>은 알렉산드러 바실리브(Alexandre Vasiliev)의 작품으로 원피스에 중국의 민화를 테마로 하여 패턴으로 나타낸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오리엔탈 에스닉은 패턴 경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17>은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작품으로 나일론 오간자에 일본의 전통 종이접기의 공예적 요소를 카테일 드레스에 접목시켜 오리엔탈의 현람함과 화려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18>은 도나텔라 베르사체(Versace)의 작품으로 두가지 이상의 소재를 믹스해 만드는 가파즈메라는 19세기 일본의 직조법으

로 만들어진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그림19>는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일본적 요소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붓글씨를 연상시키는 일본적인 간결한 붓터치에 의한 패턴은 오리엔탈의 공간적인 여백미를 느끼게



<그림13> Lee Jung Woo
VOGUE KOREA
(2002. 9). p.199



<그림14> Andrew GN
VOGUE KOREA
(2002. 12). p.25



<그림15> OSCAR DE LA
RENTA Fashion Insight
(2003. 1). p.63



<그림16> ALEXANDRE
VASILIEV Fashion Insight
(2003. 1). p.70



<그림17>Junya Watanabe
VOGUE KOREA
(2000. 8). p.266



<그림18> Versace
VOGUE KOREA
(2000. 3). p.333

한다. <그림20>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작품으로 한지에 먹이 번지는듯한 기법을 이용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1>은 구찌(Gucci)의 작품으로 일본 기모노의 소재로 주로 이용되는 실크와 화려한 패턴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22>는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의 작

품으로 중국의 치파우에서 받은 영감과 함께 인체를 극도로 강조한 장식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전통적인 문양으로 간주되는 운문, 연꽃문을 혼합시켜 오리엔트의 화려한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23>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작품으로 중국의 패션모드의 영향으로 퀘팅으로 처리한 조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오리엔탈 소재로 사용된 실크, 사틴, 자카드 등의 소재는 현대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의 아이템으로 사용되었으며, 운문, 연꽃문, 용문 등의 오리엔탈 에스닉 패턴을 중심으로 2-3개 이상의 모티프가 매치되거나 수북화, 간결한 붓터치에 의해 표현된 패턴 등은 오리엔탈리즘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19> Christian Lacroix
VOGUE KOREA
(2000. 3). p.333



<그림20> Yohji Yamamoto
VOGUE KOREA
(2002. 12). p.17



<그림21> Gucci VOGUE
KOREA
(2002. 12). p.30



<그림22> Roberto Cavalli
VOGUE KOREA
(2002. 12). p.45



<그림23> Yohji Yamamoto
marie claire KOREA
(2002. 12). p.50

4. 디테일

디테일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오리엔탈 전통의상의 부분 디테일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강조되었다. 즉 칼라, 네 크라인, 소매, 벨트 등 의복형을 이루는 부분 디테일은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새로운 조형성과 조형미로 창출되었다. 또한 오리엔탈 의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섬세한 자수, 프린징(fringing), 수공예적 기법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이 현대패션의 디테일 부분에 응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다. <그림24>, <그림25>, <그림26>은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여미는 오비와 오비지메를 벨트로 재구성한 작품들이다. 즉 <그림24>는 발리(Bally)의 작품으로 2003년 F/W 시즌의 중요한 아이템의 하나인 니트 코트와 함께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여미 때 사용되는 오비와 오비지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벨트로 변화시킨 것으로 의상 전체에서의 액센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5>는 겐조(Kenzo)의 작품으로 일본 기모노의 오비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쉬스루 소재와 자수가 놓인 불투명 소재를 패치워크한 오비벨트는 살갗이 부분적으로 드러내보이는 섹시함과 부드러운 허리선에서 느끼게 되는 우아함의 이중적인 이미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26> 안나 몰리나

리(Anna Molinari)의 작품으로 역시 일본 기모노의 오비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문양과 더불어 비즈로 장식된 허리벨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여미 때 이용되는 오비는 현대패션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장식이 가미된 벨트로 재구성되어져 의상 전체의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중요한 디테일로서 활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는 중국풍의 이미지를 여성스러운 디테일과 라인을 통하여 현대적인 모던한 이미지로 잘 나타내고 있다<그림27>. <그림28>의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적인 치파우의 칼라를 원피스에 접목시킨 형태이다.



<그림 28> Roberto Cavalli
Fashion Insight
(2003. 1). p.47



<그림24> Bally
Fashion Insight
(2003. 1). p.213



<그림25> Kenzo
VOGUE KOREA
(2000. 3). p.249



<그림26> Anna Molinari
VOGUE KOREA
(2002. 12). p.40



<그림 27> Anna Molinari
VOGUE KOREA
(2002. 12). p.40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직물 전체에 화려하게 그려진 패턴을 최대한 펼쳐 보일 수 있는 단순한 형태미와 천을 작은 조각으로 재단하거나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실루엣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사각형 실루엣이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리엔트의 정결하고 고요한 느낌, 절제미, 그리고 간결한 여백미와 어울려져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느슨한 straight 실루엣, 드레이프 또는 여러 종류의 의상을 겹쳐 입음으로써 연출되는 비정형적인 실루엣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실루엣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선의 방향이 유동적으로 바뀌어 절제미와 간결미 속에서도 리듬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었다.

2. 색채 : 색채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극도로 절제된 이미지를 주는 무채색 배색과 강렬함과 화려함을 주는 원색 배색의 양면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복잡함보다는 간결함을, 유동적이고 인공적인 것보다는 고요하고 자연적인 것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오리엔탈적인 화려함도 병행되어 표현되어졌는데 걸감과 안감의 보색사용, 한국의 색동에서 모티브를 얻은 오색 사용, 검정색 바탕에 파란 계열, 붉은 계열, 녹색계열, 노랑계열 등을 아름답게 매치시켜 현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배색을 통하여 표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 소재 및 패턴 : 소재에서의 오리엔탈리즘 표현은 금속 자수가 들어간 소재나 광택이 있는 새틴 소재, straight 실루엣의 느낌을 살리는 뻣뻣하고 거친 듯한 느낌의 자카드 소재, 사각형 실루엣을 유동적으로 변하게 하는 라인으로 재창조되게 하는 저어지(jersey) 소재, 일본의 전통 종이접기의 공예적 요소를 접목시킨 주름을 잡은 듯한 소재 등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패턴의 경우, 자개를 사용한 패턴표현, 먹이 번진 듯한 수목화 패턴, 간결한 붓터치에 의해 표현된 패턴, 오리엔트 에스닉의 구름패턴, 연꽃패턴, 용패턴 등은 오리엔탈리즘 경향으로 인해 유행된 테마임을 알 수 있었다.

4. 디테일 : 섬세한 자수나 술장식, 몽고 유목민을 연상시키는 패치워크 기법, 일본의 전통 종이접기의 수공예적 기법 등은 오리엔탈리즘 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각 민족의 역사를 통해 계승한 고유한 전통미와 아이템들이 서양복과 결합되어 현대 패션에서 오리엔탈리즘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실루엣,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 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참고문헌

- 1)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53(2), p.141.
- 2) 조규화 (1990).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59.
- 3) <http://www.yahoo.com/kr/encycl>
- 4) 조규화 (1985).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서울: 섬유산업연합회, p.401.
- 5) 최해주, 안은경 (2003). Op. cit., p.146.
- 6) 윤명자 (1992). 현대 패션의 Orientalism -'80년대 파리 프레타 콜렉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7) 이정아 (1993). 현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에스닉 (Ethnic)풍에 관한 연구-1980년대-1990년대 잡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송명진 (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1980년대 중반-91년의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최해주, 안은경 (2003). Op. cit.
- 10) 동아대백과사전 (1992). 21권. 서울: 동아출판사, p.291.
- 11) 윤명자 (1992). Op. cit., p.4.
- 12) 동아대백과사전 (1992). Op. cit., p.291.
- 13) 윤명자 (1992). Op. cit., p.36.
- 14) 브리태니커사전 (1993). 16권, p.152.
- 15) 윤명자 (1992). Op. cit., p.43.
- 16) 이진숙, 김용숙, 이효진, 엄혜정 (2003). 현대인의 패션. 서울: 교문사, p.88.
- 17) 김윤희 (1990).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18) 윤명자 (1992). Op. cit., p.50.